

여행준비 인천출발 타이베이 도착

여행국가 중화민국(타이완)

여행도시 타이베이

여행기간

2019년 2월 9일 ~ 2019년 2월 13일

TAIPEI



설 연휴를 막 지내고 남은 휴가를 사용하여 대만 여행을 하기로 하였다. 휴가기간이 짧고, 경제적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곳, 대만으로 여행하기로 결정하고 여행준비를 합니다.

여행전 준비한 항공권과 호텔예약 비용

항공권	₩404,000	4	₩1,616,000	₩1,616,000
호텔예약 4일*방2개	NT\$4,000	8	NT\$32,000	₩1,184,000
항공좌석지정	₩8,000	₩8	₩64,000	₩64,000
지출총액	지출 총액	₩2,864,000	1인당 비용은	₩716,000

아직은 방학기간이라 그런지 항공료가 만만치가 않구나!!
호텔은 타이베이 여행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한 곳에 계속 머물기로 하고 메인 스테이션 주변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심가 시먼딩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정하였고, 숙소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조식 포함해야 된다는 것과 조금은 럭셔리급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4성급을 정하다 보니 원래 타이베이 숙소 요금은 4~5만원 선에서 정하면 무난한 것 같은데 조금 비용이 상당히 올라간 여행준비가 되어버렸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주차를 하고 출발 비행시간은 약 2시간 30분



자동입출입심사로 출국심사 과정이 많이 간편해지고 시간이 절약되어 완전 편해 짐.



현재 대만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방역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청정지역으로 구분되어있어 개인별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카드가 미리 지급되어 그 카드만 제출하면 무사 통과!! 지난 정부와 많이 비교됩니다.

2시간 30분 비행기는 구름이 많은 타오위안 상공에 어느사이에 도착합니다. 제주에어 기내에서 돈받고 제공하는 라면, 냄새는 좀 생각해보아야 할 것같던데...

어쨌든 공항에 도착 그렇게 불편함 없이 입국절차가 이루어지는 공항같네요.



타오위안 국제공항 지붕 구조물이 일본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은데??

공항에 도착했으니 이곳에서 준비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쾌적한 여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진행해 봅니다.

우선 첫째, 환전 미리 준비한 미국달러를 대만달러로 환전합니다. US1\$ 는 약 30NT\$ 정도에 수수료 추가됩니다. 영수증도 다 발급해주고요. 이젠 타이완 여행 준비 첫 걸음이 준비 되었으니,

다음은 두번째로 여행중 필요한 정보 및 즐거운 SNS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행전 국내에서 자동로밍 신청을 해지해버렸습니다. 하루 1만원에 가까운 로밍비가 들어가는데 어느정도 데이터 소진시 속도 바닥, 이건 아니지요! 한국 통신사들 분발하세요!! 대만 통신비 저렴하더군요! 5일 무제한 4G 속도 가격은 300 대만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11,400원. 놀랍도록 비교되지요? 통신비 저렴합니다. USIM 많이 사용하세요. 공항도착하면 왼쪽편으로 MRT 타는 곳을 찾아 가다보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교통카드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타오위안 공항은 타이베이시에서 한 참 멀리 떨어져 있어 직행버스나 MRT 택시등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EASY CARD를 구입해보기로 합니다. 500위안에 카드를 구입하면 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400원이고 나중에 카드 회수시 100원을 환불해주는 시스템.

이젠 숙소를 찾아가면 될 것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할 것 MRT가 색깔로 구분하는데 저속으로 가는 것도 있고 고속으로 가는 것도 있다는 것. 고속은 보라색 40분이면 타이베이 메인스테이션에 도착합니다. EASY CARD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속(철운)MRT

메인 스테이션에서 내려 환승 타이베이 시내운행되는 대부분의 지하철이 연결되는 중양 역이어서 환승 역까지 상당히 많이 걸어갔어요.ㅠㅠ 캐리어 끌며...

여장을 풀어놓을 숙소인 산완트 레지던스 호텔에 오후 3시가 넘어 도착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여 계획된 일정이 단수이로 향하는 것인데, 취소하고 인근 야시장을 돌아보기로 하였다.

숙소위치는 중산역과 송산남경역 사이 린산공원부근인데 송산남경역에서 600m 정도 떨어짐



SAN WANT RESIDENCES HOTEL



랴오닝 야시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약 15분 정도 걸어난 야시장은 규모가 아주 작은 야시장이었다. 소규모의 야시장에 실망을 하고 다시 숙소를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만 느껴진다.

빨리 가서 저녁이나 먹자꾸나!

숙소주변 휘귀집을 찾아 갔는데 토요일이라 그런것인지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예약을 하지 않고 갔더니 1시간 40분 기다려야 된다고...헐.. 다른 곳으로 옮겨 겨우 자리를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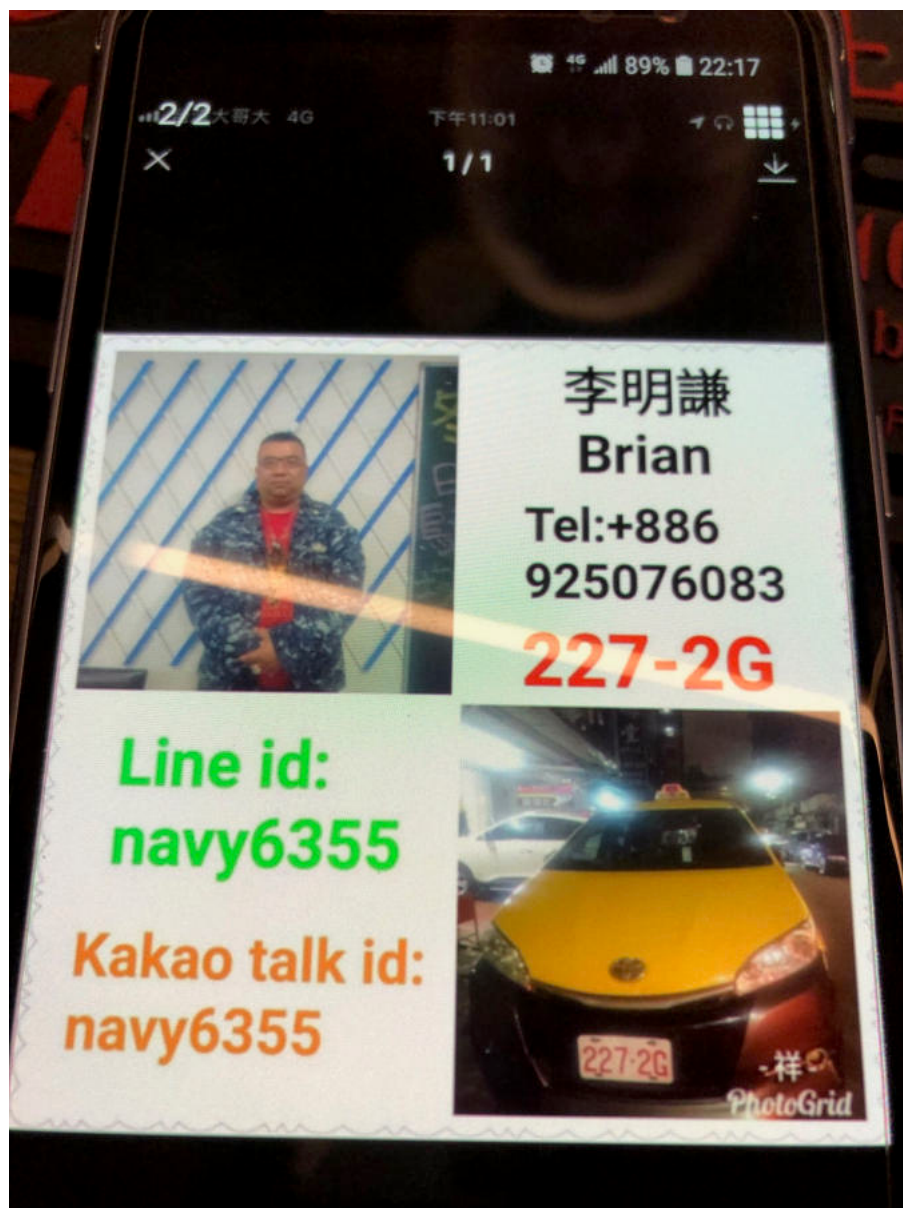
춘절 막바지 대만은 내일까지가 춘절 휴가기간 가족단위로 식사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설 연휴가 길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물어보니 택시투어 비용이 생각했던것 보다 비싸다. 택시투어는 현지에서 대충 택시잡아 예약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곳 사정일 그렇지가 않네?! 그러나 저러나 내일까지는 이곳 춘절 휴가기간이라 근교 택시투어가 혼잡할 것 같아 월요일 즈음에 할 생각인데 예약은 되어 있지 않고 비용은 예상보다 비싸고... 무슨 수가 나오겠지...

이런 걱정에 저녁에 마신 술도 약간 서운해서 혼자서 술 한 잔 할 장소를 로비에 물어보고 찾아간다. 그곳에서 여러 이야기 중 택시투어 4000달러에 예약하고 왔다.





너 때문에 택시투어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되겠다.

